

## 성령의 열매: 온유

성경말씀: 갈5:22-26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받는 것, 성화되는 것, 일시적 사건, 평생 과정

성화: 거룩히 구분되는 것, 세상과 구분되는 것, 죄와 구분되는 것, 하나님께로 구분되는 것  
자기 자신과 구분되는 것, 성품의 변화 ★★★

누가 가장 부러운가? 온유한 사람이 부럽다(분노, 용사, 영을, 도시, 잠16:32). 내 자신의 성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생명이 들어오면 삶이 바뀐다. 안 바뀌는 것 불가능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벧후14). 천국에서만, 아니면 여기서도? ★★★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가? ★★★

배경 설명, 갈1-4장, 그리스도인의 칭의, 5-6장, 그리스도인의 성화(특히 자유와 사랑과 책임)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 가정생활, 교회 생활의 문제(13-15절)

갈5:16-23, 성령과 육신, 서로 반대가 된다. 참으로 괴롭다(롬7:22-24).

성령과 육신의 갈등의 장이 성화의 과정이다.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적 갈등의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특히 온유가 필요하다(성령의 열매 제임스 닉스 참조).

### 온유의 뜻

온유: meekness(14번), meek 17번 총 31번

“저 사람 참 온유해!”, 해를 받을 때 참는 것, 용기가 없거나 연약하거나 비겁함을 뜻하지 않는다.  
갑자기 화내는 것, 악의를 피하는 것, 오랫동안 복수하려고 버르는 것의 반대가 온유이다.

온유(meekness)의 뜻: 흐르는 액체

강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

유리창에 혹은 벽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이 남는다.

공격받는 대상이 강할수록 상처와 흔적이 더 많이 남는다. ★★★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 마귀의 시험, 사람의 공격이 와도 상처와 고통 자국이 남지 않는다(욥).

모욕, 불만, 징계 등을 성령님의 온유로 덮어 버린다. ★★★

온유는 상처를 받을 때에만 드러난다. 문제없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

그러니 쉽게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여자라도).

“누가 인사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돌아보지 않는다.” 등으로 상처 받는 것: 아직 내가 높다.  
언제 마음이 상하는가? 나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인정 안 할 때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어쩔 그럴 수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등등.

갈5:26, 헛된 영광을 구하면 상처를 받는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 하면 상처받는다.

가정에서도 대접받으려 하면 가정이 힘들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고민: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까? ★★★

온유는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다윗과 사울).

예수님의 성품이다(마11:29).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온유는 화평을 만들어 낸다.

한 사람의 혼이 큰 것을 보여 주는 척도이다. 혼의 크기는 일의 크기가 아니다.

너무 마음이 커서 작은 해나 상처가 움직이지 못한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 온유한 자의 특성

1. 골3:12, 13, 다툼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생긴다. 가정, 직장, 교회, 온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한다. 에스더

2. 갈6:1,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져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반응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온유: 왕의 왕, 주의 주, 그런데 베들레헴의 딸구유에 오셨다.

3. 벧전 3:14-16, 소망의 이유(전도)를 온유하게 전달한다.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한다(15절).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부패한 것, 상처받은 것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드린다”

“어떤 자가 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몹쓸 짓은 한 쪽으로 치워 버리고 마음속에 나만을 간직하라.” 나쁜 것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께 그것을 던져버리면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선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16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옹호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침례 등등 ★★★  
악한 자, 욕심쟁이라는 비방을 들었는데 만나보니 신사더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

4. 딤후2:24-26, 지도자의 특징

교리가 잘못된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권면하거나 충고해도 듣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야 한다.

#### 온유한 자의 자리매김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4장 9-13절

우리가 이 날까지 세상의 오물(汚物)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찌꺼기 취급을 받는다. 참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다(수염이 뽑혔다. 침을 뱉었다. 뺨을 맞았다. 결국 죄수로 십자가를 지셨다).

바울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바울은 이미 자기를 세상의 오물이요, 찌꺼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비방의 말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

#### 온유한 자의 구체적인 예

1. 민12장의 모세,

회중이 모세를 대적함,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없이 많은 불평불만

그런데 드디어 형과 누나가 등장해서 모세의 아내에 대해 비방을 함(이디오피아 여인, 피부색).

모세는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함.

모세에 대한 비방이 너무 크니 주님이 대신 나선다(12:4-10).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린다.

모세의 온유함(13절):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함.

이게 가능할까? 일 년에 하루 이틀 정도, 성령님이 함께 해야 매일 가능하다. ★★★

2. 마11:28-29, 나는 온유하다

“너희가 이제껏 내게 행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할 일은 내게로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짊어지리니 나는 온유하다.”

마21:8-9,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온유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많은 군중이 호산나 소리, 종려나무를 흔든다.

교회 지도자의 성품

온유한 사람은 비방에 대해 쓴 뿌리를 내지 않으며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종의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유지한다.

#### 결론

이런 성품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

불가능하다. 성령님께서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열매로 나오게 된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제어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목회의 목적을 다시 점검한다’. 자기를 먼저 목회한다. 가정, 직장, 교회

온유한가? ★★★

온유하기 원하는가? ★★★